

Maison

30 ANNIVERSARY **marie claire**

2024 APRIL
WWW.MAISONKOREA.COM

COVER STORY
건축가 프란체스카
벤투로니가 지은 밀란 집

TREND
지금, 웰니스

ART TRAVEL
멕시코 케트살코아를 동굴 탐험
아라비아에서 72시간

SPACE
니나 야사르가 디렉팅한
전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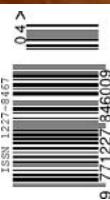
HOBBY
아쿠아스케이핑의 세계

INTERIOR
이정배, 이진주 작가의 집
인테리어 디자이너 티에리 르메르의 파리 집
발레리 오브젝트 대표의 집과 갤러리

OUTDOOR LIVING TREND

13개 글로벌 브랜드가 추천하는 아웃도어 가구 트렌드

정가 9,000원





포앤비노의 패널로 마감한 벽



칼한센앤선의 콜로니얼 Colonial 풋 스톨

House of Danish Design

지난 2월,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는 덴마크의 디자인 미학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하우스 오브 데니쉬 디자인’ 국가관이 열렸다. 주한 덴마크대사관이 주최하고 SPOA 건축사무소가 기획한 파빌리온에는 칼한센앤선 Carl Hansen&Søn, 데니쉬 레거시 Danish Legacy, 포앤비노 Fog&Venø, 프리츠한센 Fritz Hansen, 게오르그 옌센 다마스크 Georg Jensen Damask, 네이처스 컬렉션 Natures Collection, 노르위그룹 NorviGroup, 우메이 Umei, 볼라 Vola 등 9개 덴마크 리빙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였다. 가구와 텍스타일, 인테리어 등 라이프스타일 전면에서 덴마크 디자인이 지닌 장인정신과 인간 중심의 디자인 혁신, 기능적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던 시간. 지속 가능성으로 다양한 공간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쿠스틱 패널 브랜드 포앤비노의 톰 비노 닐슨 Tom Venø Nielsen 최고비전책임자와 칼한센앤선 김린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WEB** www.creativedenmark.com **EDITOR** 김민지



Fog&Venø, 톰 비노 닐슨 최고비전책임자

포앤비노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아직 한국에는 진출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4년 전 시작한 신생 브랜드로서 덴마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조회사 중 하나다.

인테리어나 음향 효과를 위한 어쿠스틱 패널을 만든다. 목재와 석재, 리놀륨 등 다양한 소재의 패널이 있다.

어쿠스틱 패널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 판매 제품의 90% 이상이 인테리어의 심미성을 위해 사용된다. 패널을 통해 벽재뿐 아니라 침대 프레임 같은 가구도 제작이 가능하다. 다양한 루버 소재를 패널 형태로 재단해 판매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공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지금까지 덴마크 내에서만 30만 개 이상이 판매됐으며, 연 매출은 5000만 유로에 달한다. 덴마크 총 인구가 600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놀라운 수치다. **지속 가능성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고 들었다.** 생산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뿐 아니라 모든 목재는 FSC 인증 목재를 사용한다. 벽에 닿는 패널 부분에는 흡음성을 위해 펠트 소재가 부착되어 있는데, 최소 50% 이상은 축구장에서 쓸모를 다한 인조 잔디나 재활용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해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인증을 받았다.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의 가치에 주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우리 후세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Carl Hansen&Søn, 김린 이사장

이번 행사의 소감이 궁금하다. 칼한센앤선은 그동안 국내 페어에 참여를 잘 안 해온 터라 감회가 남다르다. 무엇보다 다양한 브랜드가 함께 모여 이뤄낸 시너지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칼한센앤선뿐 아니라 우메이, 프리츠한센, 포앤비노,

게오르그 옌센 등 다양한 브랜드의 가구와 제품이 한데 섞였지만 그 무엇 하나 튀지 않고 자연스럽다.

칼한센앤선이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는 어떠한가? 칼한센앤선은 덴마크 내에서 굉장히 대중적인 이미지다. 한국에서는 낮은 가격대가 아니지만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자재의 가격과 디자인의 가치, 공임, 제품의 품질을 따졌을 때 결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내 소비자에게도 그 부분을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다. 직접 써봐야 알 수 있다.

국내 베스트셀링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위시본 체어라 불리는 CH24 체어가 베스트셀러이지만 국내만은 예외로 CH88이 가장 잘 팔린다. 이는 수많은 카피 제품과 관련 있는 복잡한 문제다.

칼한센앤선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는 FSC 인증(국제 NGO인 산림관리협회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확산을 위해 설립한 인증 제도) 이슈가 있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벌목장의 나무만 사용해왔다. 물론 현재도 95% 이상 FSC 인증된 목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목재 가공 과정에서 나온 나무 부산물은 공장이 위치한 게스타드 지역 난방을 위해 쓰고 있다.